2040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범도민 추진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COSMO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拏日報 제9813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3년 3월 2일 목요일(음력 2월 11일)

"만세·만세·만세" 1일 제주항일기념관 추념탑 광장에서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이 진행됐다. 기념식에 참석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 광복회원, 도민 등 1000여명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혈세 투입 설문대전시관 부실 논란 불가피

2019년 전시관 준공 후 59억 들여 전시물 제작·설치
제주돌문화공원 4월 용역 완료 후 콘텐츠 보강 공사
제주역사관과 개발·전시 콘텐츠 중복 우려도 제기

제주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전시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치된 전시 패널들이 관람객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철거된다.

설문대할망전시관 내 전시패널 철거 후 다시 전시시설 보강 공사에 혈세를 투입할 예정이어서 부실설계에 따른 책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전시관은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2만4000여㎡)로 제주 신화와 역사·민속을 각각의 전용 공간에 구현해 제주문화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시설로 지어졌다. 지난 2019년 8월 건축 및 부대공사 준공 후 2020년 11월 30일 전시물 제작·설치를 완료했다. 총 사업비는 819억원으로, 이중 전시물 제작·설치 비용으로 59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설문대할망전시관 준공 후 개관을 앞두고 부실시공 및 전시콘텐츠·학예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자치도는 오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전시관 공간 활성화 용역을 발주했다.

이후 도내외 전문가들이 진단한 결과 전시관 내 설치된 전시패널 철거가 불가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돌문화공원은 오는 4월 전시관 공간 활성화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비를 투입해 전시 컨텐츠 보강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오는 2026년까지 141억원을 투입해 '제주역사관' 건립을 추진키로 결정해 두 기관의 전시물·업무 중복이 우려되고 있다.

설문대할망전시관은 제주의 신화·역사·민속 전용 공간에 전시할 목적으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유물 6527점을 이관 받았으나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과 연계해 주변시설을 활용해 건립하는 '제주역사관'도 삼성혈 개국 신화를 토대로 탐라시대에서 근 현대사까지 제주어 등 역사· 문화·콘텐츠를 개발, 전시할 예정이다.

제주돌문화공원 관계자는 "설문대할망전시관은 유물이 있고 이 유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전시패널 위주로 돼 있는데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전시패널 위주를 어떤식으로 실감형으로 고쳐서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4월 용역이 나오면 집행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돌문화공원은 역사를 통사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그냥 시대별 제주돌문화를 통해 본 역사서술로 범위를 좁히는 것으로 하고 있다"며 "조만간 제주역사관 건립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용역에 세부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4·3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 보고회… 4면 / 주택 미분양 역대 최대… 5면

총인구 늘었지만 20~30대 큰 폭 줄어

전년보다 2275명 증가… 20~30대는 3853명 감소

지난해 말 기준 제주 총인구가 전년(2021년)보다 2275명 증가한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가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층인 20~30대 인구 수는 큰 폭으로 줄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별 인구, 연령구조 및 세대, 외국인 인구의 현황과 변화 등을 담은 '주민등록 등록인구통계'를 28일 공표했다.

제주도 총인구 중 내국인은 67만8159명, 외국인은 2만1592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1400명, 875명 증가했다.

특히 전체 인구 중 등록외국인 인구의 비중이 3.1%로, 2020년부터 2년간 감소하다 다시 증가로 전환됐다.

세대 수는 31만1355세대로 전년 대비 3826세대(1.2%) 증가한 반면 세대 당 인구는 2.18명으로 전년에 비해 0.02명 감소했다.

전체 인구 중 유소년인구(0~14세)는 13.2%, 생산가능인구(15~65세) 70.2%,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6.6%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50대의 비중이 33.5%로 가장 높았다.

다만 연령대별 인구 증감 수준을 보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선 0세에서 9세 사이 인구가 전년 대비 무려 3365명이 감소했다. 20대 인구는 전년대비 2655명이 줄었고, 30대 인구도 전년대비 1198명이 감소했다. 40대 인구도 10명이 감소했다.

반면 50대 인구는 전년 대비 2368명이 늘었고 60대 인구는 무려 4192명이 증가했다. 70대 인구도 1138명이 증가했으며 80대 이상은 1397명이 늘었다. 젊은 층은 줄고 고령 인구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ICT 기반 축산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제주도, 이달부터 시범 운영 운영 내년 확대

제주 축산 악취를 실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정보통신술을 도입한 악취관리시스템이 구축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정보통신기술(ICT) 악취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악취관리시스템은 축산사업장 내 악취측정기로 수집한 정보를 도·행정시 축산부서 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 감지하고, 일정 관리농도 초과 시 해당 농가에 알림을 보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악취저감활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 악취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 충남 당진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도내 악취 측정용 정보통신기술 장비가 설치된 축산사업장은 61개소이며, 지속적인 설치 지원과 홍보로 장비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악취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악취민원 예방에 큰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점을 보완하고, 농가 활용도를 높여 축산사업장 악취로 인한 도민 생활불편 최소화에 힘쓸 계획이다. 이태윤기자